

기계화가 또 다른 성별위계 만든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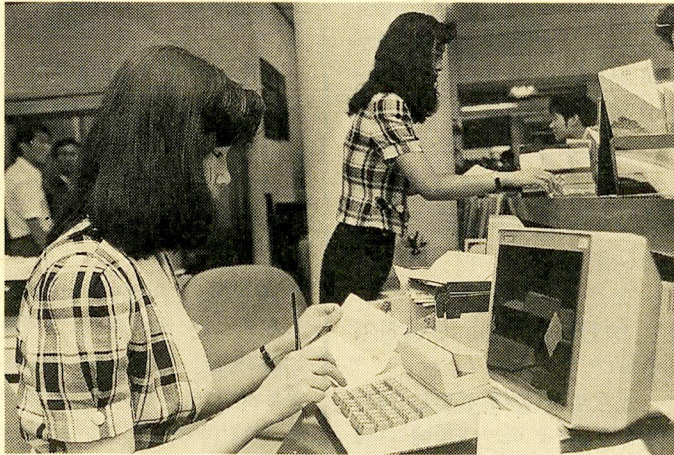
장필화·조형 교수, '정보사회와 여성' 관련 논문서 밝혀

여 91.8.9

기계화와 자동화를 특징으로 하는 정보사회에서 여성노동자의 지위는 개선될 것인가를 주제로 몇 편의 연구가 나와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.

한국여성학회(회장 정금자, 숙대 영문학)와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(소장 조형)가 지난 6월 통신개발 연구원에 제출한 이 연구들은 컴퓨터 기계설비 도입에 따른 여성노동의 변화를 사무직과 생산직에서 각각 분석하고 있다.

〈공장자동화와 생산직 여성노동의 변화; 의류봉제산업을 중심으로〉를 연구한 장필화(이대 여성학) 교수는 “공장자동화로 인해 인간의 기계부품화



와 소외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 장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비싼 가격의 최첨단 설비가 공장 내에 설치되면 작업환경은 작업

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심이 아니라 ‘고가 설비’를 중심으로 실내온도, 습도, 청결도가 유지된다는 것.

장 교수가 연구대상으로

선택한 ‘A’ 대기업 의류봉제사업장의 경우, 노동시간은 오후 5시까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고, 깨끗한 작업장 안에는 생수와 개인용 이어폰이 설치돼 작업 내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분위기. 또 작업장의 각 공정은 모두 자동화된 관계로 다른 숙련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작업 공정은 비교적 손쉽다는 것.

그러나 장 교수는 “상대적으로 그럴 듯해 보이는 이같은 작업조건이 결과적으로는 여성노동자를 탈숙련화 시키고 있다”며 여성노동자들은 기술습득에서 멀어지거나 노동자들 간의 친목형성도 어렵게 하고

있다고 지적하고 있다.

특히 남자-재단사·프레스공, 여자-미성공·시다라는 성별에 따른 일의 완전한 구분은 완화됐지만 자동화된 기계를 관리, 통제하는 사람은 현장 내의 소수 남성이고, 기계의 단순이용자는 다수 여성이라는 새로운 성별분업의 위계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장 교수의 주장이다.

자동화에 따른 새로운 성별분업 현상은 사무직에서도 나타난다. 6백여 명의 사무직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조형(이화여대 사회학) 교수의 〈정보사회와 여성의 일〉은 금융 업무에 나타나는 남녀

업무분리를 분석한 것.

조 교수는 현재 은행에서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수신업무는 창구에서 주로 단말기를 조작하는 단순 반복적 업무, 또는 특별한 지식이나 훈련이 필요없는 업무로 평가된다고 밝혔다. 이는 결과적으로 직무상 수평적 분리가 남성-숙련-주업무, 여성-미숙련-보조업무의 수직적 분리로 연결된다는 것. 이같은 성별분리는 “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, 기술수준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차별적인 관행이나 인식 등 주로 업무 외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다”고 조 교수는 분석했다. 〈박미라 기자〉